



법무부

브리핑자료

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
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

총 4쪽 / 사진 없음

전자감독과

과 장 심선옥

02-2110-3793

사무관 김충원

02-2110-3795

사무관 정주호

02-2110-3794

사무관 홍재성

02-2110-3723

서울동부노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

- 지도감독 상황 및 전자장치 훼손 후 조치사항 등

☐ 전자감독 부착 및 지도감독 상황

【전자감독대상자 인적사항】

- ▶ 강○○(56세, 화장품 판매원)
 - 소급 형기종료 전자감독 5년('21. 5. 6. ~ '26. 5. 5.)
 - 준수사항 : 외출제한(23:00~04:00), 피해자 접근금지,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, 생업종사 증빙자료 제출
 - 범죄경력 총 14회(실형 8회, 성범죄 2건), 신상정보등록·공개·고지 없음
 - ※ '04년 이혼, 출소 후 혼자 생활하며 화장품 판매원 근무

① 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

- 전자감독대상자 강○○은 '21. 5. 6.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된 자로,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입니다.
-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,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복역 전력이 있으며, 성폭력 전력은 2회입니다.
 - ※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 기간 약 27년
 - 첫 번째 성범죄는 '96. 10. 길을 가던 피해자(여, 35세)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며, 이로 인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.

- 두 번째 성범죄는 '05. 4. 가출소 후 5개월만인 '05. 9. 차량안에서 흉기로 피해자(여, 28세)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받아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되었습니다.
-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 복역 중 '20. 6. 소급부착명령 5년을 결정받았고, '20. 10.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, '21. 5. 6.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(5년)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.

2 지도감독 상황

- '21. 5. 6. 가출소로 출소 당시 서울보호관찰소의 감독 대상이었으나 5. 14. 주거지를 이전하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
-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 주거지 등을 불시방문(12회)하여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대면지도를 했고, 일상 생활패턴과 다른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에는 통신지도(17회) 및 이동경로 점검(18회) 등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.
-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종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,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2회(6. 1, 8. 27.) 위반하였습니다.
 - 훼손 사건 당일인 8. 27. 위반의 경우 00:14경 위반경보가 발생하여 범죄예방팀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. 그런데,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0:34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,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하여 소환·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.

☐ 전자장치 훼손 사건 후 조치사항

1 전자장치 훼손 발생 후 초기 조치사항

- 8. 27.(금) 17:31경 훼손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전자장치 훼손사실을 112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하였습니다.

-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18:00경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, 즉시 서울·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,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

② 특사경 수사상황

- 8. 27.(금) 17:31경 훼손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, 소재추적에 들어갔습니다.
 -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소재를 추적하였고, 23:00경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하여 수배차량 검색시스템(WASS), 차적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 -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8. 28.(토) 09:00경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으나, 09:18경 대상자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.
 - 이후, 휴대폰 위치추적, CCTV조회, 가족·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추적을 실시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.

□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

-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'06. 6. 도입되었고,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'11. 4.에 도입되었습니다.
- '13. 6.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제도 시행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·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급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었고, 위 대상자는 그 이전인 '06. 5.에 형이 확정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□ 향후 계획

-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
①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

-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

②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

- 훼손 초기 대응 협력,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 확대,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

③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

- 범죄전력, 범죄수법(정적요인) 외에 생업종사,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 (동적요인)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 도입
-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등 지도감독 강화,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원호, 심리치료 등 내적동기 강화 조치 병행
-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

④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

-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나, 전자감독 대상자도 약 2,200명이 늘어나 지속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임
- 인력증원에 맞춰 ③의 개선방안을 밀도있게 추진할 계획

-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,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